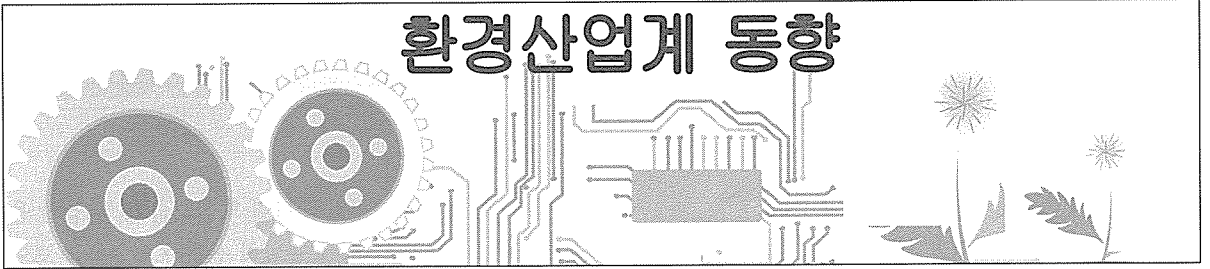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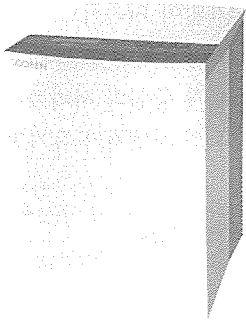


환경산업계 동향



루펜리, 음식물 처리기 '루펜 LF-03Q' 선보여



(주)루펜리(대표 이희자)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서 개최되는 '음식물 감량기 전시회'에 참가, 음식물쓰레기 양을 10분의1까지 줄일 수 있는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작년부터 수도권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와 최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주)루펜리 등 총 9개 업체가 참가 30여개의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선보였다.

(주)루펜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사 개발품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루펜 LF-03Q'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사측에 따르면 '루펜 LF-03Q'는 복잡한 설치과정이 필요 없는 원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열풍건조'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10분의1로 줄어들어)가루형태로 배출되 연료나 동물의 사료, 식물비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쓰레기 양을 평소의 10분의1까지 줄일 수 있는 앞선 기술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빌트인 가전과 가정용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루펜리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구민들에게 자체 제작한 장바구니를 무료로 증정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하자는 취지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주)루펜리 이희자 사장은 "가정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사

용하면 연간 7~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버려지는 남은 음식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연구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루펜리는 지난 2000년부터 친환경 기술인 '건조시스템'을 도입해 남은 음식을 냄새와 소음없이 건조시켜 부피를 줄이고 음식물을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국내 및 국제인증을 취득해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사랑, 기업성장으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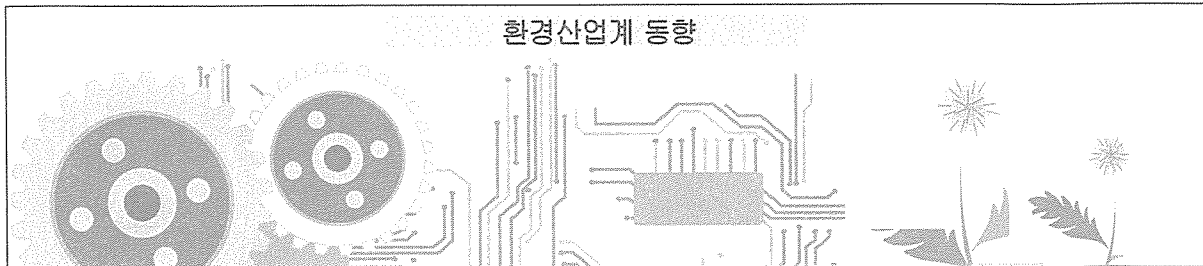
한국능률협회 경영인증원(회장 송인상)이 지난 20일 서울 흥재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시상하는 2006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 삼성에버랜드와 한라공조, 포스코건설, 한국중부발전, GS칼텍스,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대전광역시청이 선정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은 글로벌 수준의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환경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형 기업 경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친환경 경영시스템 및 전사적 실천 조직을 바탕으로 녹색경영 활동을 펼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하는 녹색경영 부문 대상에는 삼성에버랜드와 한라공조, 포스코건설, 한국중부발전, GS칼텍스,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대전광역시청이 이름을 올렸다.

삼성에버랜드와 한라공조는 3년 연속, 포스코건설과 한국중부발전은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신광, 우수상에는 리메텍이 뽑혔다. 환경적·기술적·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시상하는 녹색기술 부문 대상에는 대한통운과 동일그린시스가 선정됐다.

성원이엔티와 한남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친환경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수여하는 녹색제품 부문에는 동화자연마루, 삼성전자 하우젠 드럼 및 토너카트리리지, SK ZIC XQ, 오티스 엘리베이터 ZeN2, 웅진코웨이 롤루·코웨이, 그린케미칼 슈가버블 세탁세제 및 슈가버블 살균세척제가 1위를 차지했다.

녹색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에게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장에 수여하는 녹색서비스 부문에서는 삼성테크스코 홈플러스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보고서 부문에는 삼성SDI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베스트 녹색리포트상에 선정됐다.

대한통운, 폐수 재처리기술 앞서

1930년 설립된 대한통운은 육상 운송을 비롯해 해상·항공 운송, 항만 하역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택배, 렌터카, 유통사업 등 소비자 물류 부문과 환경사업을 통해 고품질의 토털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특히 90년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에 힘을 쏟은 결과로 2001년 'HANT 공법(고도처리용 막분리 공법)' 탄생으로 이어졌다.

HANT 공법은 상수원 수질 기준으로 2등급 이상의 수질을 가진 처리수 생성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 기술이다. 여기에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함으로써 부영양화에 의한 수계오염의 염려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HANT 공법은 오수처리시설은 물론 하수·폐수 그리고 중수처리시설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한통운의 이러한 환경경영 투자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고 이후 운송과 하역, 택배와 렌터카 부문에서 환경친화 경영을 수행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대한통운은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와 끊임없는 환경기술개발을 통해 녹색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한라공조, 중금속 배출 크게 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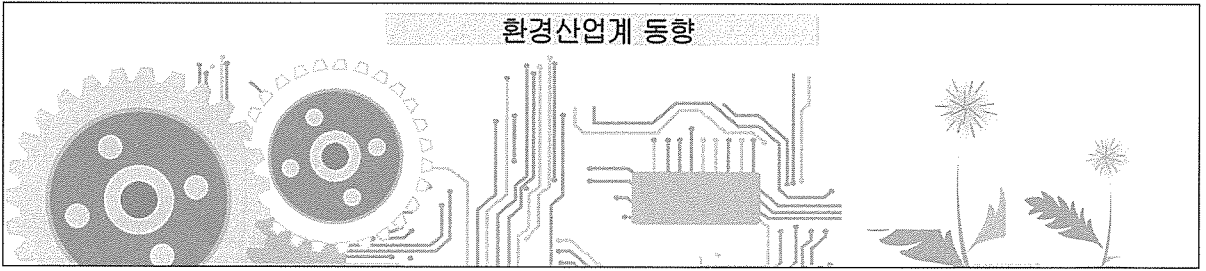
1986년 설립된 한라공조는 자동차용 에어컨 시스템과 차량 앞부분의 각종 부품을 한 세트 모듈화한 'FEM(Front End Module)' 전문 생산업체다.

현재 국내 자동차 공조기기 분야 시장점유율 54%를 차지하고 있다. 한라공조는 환경안전경영을 회사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경영전략과 연계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라공조는 지난해 2월 교토의정서가 비준된 후 전사적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환경부문, 생산환경부문, 제품환경부문, 그린구매부문으로 나누어 적극 실천하고 있다.

경영환경부문에서는 97년 환경경영 실행 후 2004년까지 약 8년간 폐기물 및 오·폐수 관리비용 등에서 78억여 원의 환경관리비용을 절감했다.

생산환경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 공정개발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추진한 결과 에어컨 생산공정에서 크롬도



금을 삭제해 중금속 수계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함께 한라공조는 환경보호와 대체에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최적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삼성SDI, 윤리·환경경영 ‘굿’

삼성SDI가 다우존스 지속 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DJSI)에 국내 최초로 3년 연속 회원사로 선정됐다. 이로써 삼성SDI는 세계적인 펀드 운용사들이 도덕적이고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의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와 세계적인 자산관리사인 스위스 SAM이 1999년부터 공동으로 발표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다. 기업들을 단순히 재무정보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투자기관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책임투자(SRI) 지수 중 가장 권위있는 지수로 통용되고 있다.

전세계 24개국 318개 기업이 뽑혔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SDI 외에 포스코가 유일했다. 더구나 3년 연속 수상한 기업은 극소수 기업만 해당된다. 4년 연속 수상한 기업은 도요타(4년), 3M(5년), 인텔(8년) 등이 있다. 삼성SDI는 3년 연속 수상으로 독일 지멘스, 미국 애질런트 등 전자기기 부문 4사 중 선두기업으로 인정받았다.

DJSI의 평가정보는 세계적인 투자기관과 투자자에게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 고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DJSI는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보증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DJSI에 편입된 기업들 주가 수익률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도 있다. 김순택 삼성SDI 사장은 “단순히 경제적 목표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 세계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우리 생태아파트에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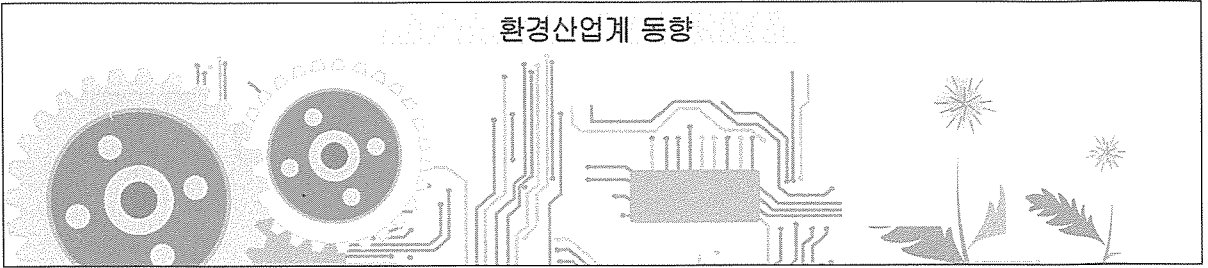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꾸는 ‘생태아파트’가 도입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한국토지공사 후원으로 지난 9월 초부터 내년 7월 말까지 자연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아파트 단지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의 10년 이상 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중 한 곳을 선정해 자연친화적 생태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아파트 동네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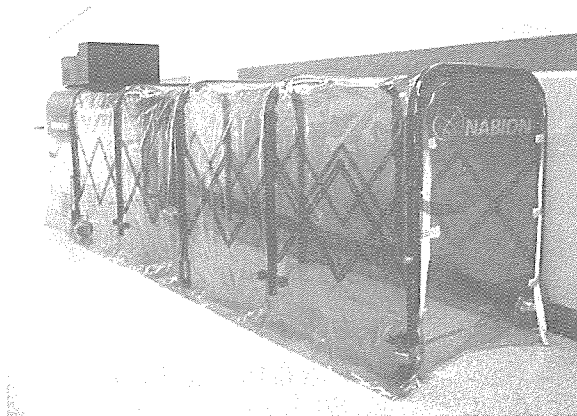
이번 생태아파트 조성사업은 아파트 단지 생태환경 실태조사, 주민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 조성, 우리 마을 생태투어 등 크게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전문가와 실무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역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이 생태교육 과정을 이수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발적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 공간 조성(산책로, 꽃길조성, 자투리 땅 녹지화, 생태연못, 분수대, 한 뼘 농장) ▷휴식 공간 조성(소공원에 어울리는 정자·벤치)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태양열 가로등 설치, 지렁이분양 통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생활공간 녹색화 운동의 본보기를 제기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세진 부장은 “생태아파트 라는 용어 자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그간 주거나 투자공간으로만 인식돼 온 아파트가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이동형 쇼핑카트살균 시스템 개발



(주)버터플라이이펙트(대표 오유진)는 쇼핑카트 살균시스템(사진)을 개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사측은 'NABION'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은 국내 최초의 이동형 카트살균시스템으로 터널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대의 카트 전체를 살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쇼핑카트 살균시스템에 이용되는 살균제는 EU의 승인을 받아 유럽국가들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개념 살균물

질로 일반세균은 물론 항생제 내성균에도 살균효과가 뛰어나며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올해 초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세균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대형할인매장의 쇼핑카트 손잡이가 가장 오염이 심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쇼핑카트의 세균이 문제가 되자 많은 대형할인매장들이 카트의 청소회수를 늘리거나 항균티슈를 비치, 고객들로 하여금 손잡이를 닦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고객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방법이 근본적으로 쇼핑카트의 세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런 방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할인매장조차 많지 않아 소비자들은 여전히 쇼핑카트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할인매장에서 어린 자녀를 쇼핑카트에 태우고 장을 보는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쇼핑카트를 만졌던 손을 입에 넣기도 하고 카트를 빨거나 세균에 오염된 손으로 음식물을 먹기도 한다. 실제 카트의 손잡이도 문제지만 바구니 부분은 채소나 육류 등 식품의 유기물로 인해 세균의 오염 및 번식 가능성이 더 크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버터플라이이펙트 관계자는 “여유공간이 많지 않은 국내 할인매장의 현실을 고려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고안했다”며 “카트살균시스템의 도입으로 할인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월간 '환경기술인' 광고 문의 ☎ 02)852-2291